

# 근대전환기 초대 프랑스 駐朝公使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의 도자외교\*

엄 승 희\*\*

- I. 머리말
- II. 근대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플랑시공사의 內朝를 통한 한국 도자인식
- III. 플랑시공사의 對조선 도자외교
  - 1. 한국 도자수집에 대한 專意一念의 여정
  - 2. 도자사 연구의 참여
  - 3. 陶製기술과 공예교육의 도입
- IV. 플랑시공사의 소임과 한국 도자문화 정체성 유포의 提高
  - 1. 한국 도자문화의 활용과 기여도
  - 2.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도자 위상확립
- V. 맺음말

## I. 머리말

19세기 말의 조선은 朝日修好條規을 체결한 이래, 구미열강들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였다.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 朝鮮名, 葛林德, 이하 플랑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2004)

\*\*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객원연구원

시공사로 약칭)는 조불수호조약(고종 23년)이 체결되던 1886년 서울에 부임한 최초의 주조 프랑스 대리공사이면서 구미열강 외교관 중에서 문화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플랑시공사는 對조선 외교관계에서나 私적으로도 조선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약 13년간 지속된 조선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1905년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가 사색하고 관심을 표명한 한국 문화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을 만큼 다양했고,<sup>1</sup> 그 문화재를 평가하는 慧眼과 鑑識은 외교 관료로서 가히 특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플랑시공사가 한국의 도자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에 입성한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는 한국 도자의 체계적인 계보와 연구를 구현하기 위해 시대별로 유물을 수집했고, 그 유물들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물들은 현재 프랑스의 국립 박물관들에 기증되어 소장 중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프랑스 기메박물관과 세브르도자박물관, 트로와 메디아테크(Médiathèque de Troyes) 아카이브 등에 소장된 플랑시공사 자필의 서신, 공문서, 장부 등에 자세히 남겨져 있어, 근대기 플랑시공사와 조불 도자문화의 메커니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2</sup> 또한 그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에서 공사시절을 보낸 이력에 따라, 한국 도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 관료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당대 일본의 고려고분과 도요지 발굴정황에서 플랑시공사와의 연관성을 일부 도출할 수 있다.<sup>3</sup>

플랑시공사가 조선에 머무는 동안 각별하게 한국 도자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부분은 일찌감치 자국의 동양어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여 동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프랑스의 시대적 상황, 즉 문화정책 및 박물관정책을

1 플랑시공사가 조선에서 수집한 한국의 유물은 대략 13년간, 약 2,5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가 2018년 4월 기준으로 3,600여 점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소장가로서 압도적인 규모이다. 현재 플랑시의 한국 컬렉션은 대학언어문명도서관(BULAC), 기메박물관과 부속 아카이브, 세브르도자박물관과 세브르도자제작소, 프랑스국립도서관, 트루아시립메디아테크, 관측대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생루박물관, 프랑스 외교부기록보관소 등 약 9개의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

2 본 논문에서 인용된 플랑시공사의 문서자료와 사진들은 프랑스 트로와 메디아테크 archives 부관장 엠마누엘 미노리슴(Emmanuelle Minault-Richomme)과 국립세브르도자박물관 archives 학예관 코랄리 코시노(Coralie.Coscino) 및 前 아시아담당 큐레이터 스테파니 브루이에(Stéphanie Brouillet), 고려대학교 김윤정교수 등의 협조로 제공받았다.

3 鹽田力蔵, 『山吉氏の高麗陶器』, 『大日本窯業協會雜誌』93 (大日本窯業協會, 1890); 山吉盛義, 『古高麗美痕』(1900); 片山まび, 『いつ「高麗青磁」は誕生したのか? - 高麗青磁の初現に関する研究史解題』, 『高麗青磁の誕生 - 初期高麗青磁とその展開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등을 참조.

크게 반영한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럽에서도 가장 많은 한국 도자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와 근대기 그 도자들의 수집, 기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플랑시공사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엽 플랑시공사의 조선 도항을 계기로 증폭된 한국 도자의 프랑스 인식과 프랑스 도자기술력의 조선 유입전개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저변에 프랑스 제국주의 문화정책과의 상관성을 추론하면서, 플랑시공사의 한국 도자외교 전략과 개인적 탐구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기반은 향후 유럽 전역에 전파된 한국 도자의 입지적 특성과 역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근대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플랑시공사의 문화정책을 통한 한국 도자인식

근대기 프랑스 문화정책 기반의 일부는 중세 이후 서로 유리된 외부문화를 개별적으로 흡수하여 프랑스적인 것으로 재생산시키는 문화를 산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특히 프랑스의 문화지배는 문화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던 15세기 중엽 이후, 군주들의 왕권강화를 주목적으로 해외원정을 통해 우수한 외국문화를 강제 수입하면서 새로운 문예풍토를 적극적으로 정착시켜 나갔다.<sup>4</sup> 근대기에 이르러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은 당대의 문화전략과 맞물리면서 문물 수입을 극대화시켰고 제국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표출시켰다. 특히 나폴레옹정권시기에 정착된 문화정책은 문화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직결되어 우수한 문화의 창달이 곧 우수한 국민성으로 이어진다는 민족국가의 문화개념을 확고히 하였다.<sup>5</sup> 이처럼 고대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프랑스로 집중시킴으로써, 모든 문명을 계승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은 국가의 정체성과 연계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것이다.

한편 근대 프랑스의 문화적 조류현상은 동양의 도자에 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19세기 말엽 이미 개화된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동양의 도자가 감상의 매개물로서 자리매김했다. 17세기 이후 동인도회사를 통해 막대한 양의 중국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유입되었고 귀족들과

<sup>4</sup> Maurois, Andre, *Histoire de la France* (Paris: Albin Michel, 1957), pp.43-52.

<sup>5</sup> Norman F. Cantor 저, 池東植 외 공역, 『서양사신론 II』(법문사, 1979), p. 175.



도1 플랑시공사, 1904-1905년경 서울(프랑스 Archives Album de photographie 제공, A009496)



도2 백자꽃무늬화병, 세브르도자제작소, 19세기 말, 53.2×62.1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도3 청자양각모란당초문화형대접, 12세기 후반, 7.0×19.3×6.2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소장한 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 59)

부르조아 계층들은 이를 선호하며 수집하였다.<sup>6</sup> 동양 최대의 도자기 중주국이었던 중국에 대한 관심은 향후 일본으로 이어졌다. 특히 근대기 일본자기의 애호는 한국 도자의 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지만, 결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써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sup>7</sup>

오히려 근대기 한국 도자를 프랑스 자국에 인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는 플랑시공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마련되었다(도 1). 플랑시공사는 1886년 조불조약이 체결되던 해, 주조 대리공사 자격으로 조선에 부임하였고, 조선에서 공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한국 문화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가 접한 한국 공예품들은 다른 문화재에 비해 관심도가 높았는지 프랑스의 기증품 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집계되며, 현재 프랑스 기메 박물관과 세브르도자박물관, 생루박물관(Musée Saint-Loup) 등에 플랑시공사의 기증품들이 분산되어 소장되었다.

<sup>6</sup> 관련해서는 Michel Beurdeley, *Chinese Trade Porcelain* (Rutland: Charles E. Tuttle Co., 1962); C. J. A. Jörg,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Hague: Springer, 1982); John E. Wollmer, E. J. Keall, E. Nagai-Berthrong, *Silk Roads-China Ships* (Toronto: Royal Ontario Museum, 1984); Anthony Reid,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Belief* (Cornell: Cornell Univ. Pr., 1993) 등을 참조.

<sup>7</sup> 김윤정, 「근대 유럽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 배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6(2018), pp. 38-47.

플랑시공사가 한국 공예품 중에서도 도자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수교 직후였다. 그 물고는 조선과 프랑스의 대통령이 批准式의 축하예물로서 각국 도자기를 교환하는데서 비롯되며(도 2, 3),<sup>8</sup> 당시 이를 추진했던 장본인이 플랑시공사였다. 플랑시공사는 300년간을 이어온 왕립제작소인 세브르도자제작소(Manufacture National de Sèvres)의 화려하고도 정제된 자기들을 비준 예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브르 자기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 왕실, 귀족 및 부호들의 권력과 특권, 재력을 대변하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사실에 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랑스 도자기기술의 위상을 對조선 외교에도 접목하려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자기를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으로 여겼던 플랑시공사의 의지는 외교관이면서 수집가이자 기증자로 자리매김하는 특별한 계기였다.

플랑시공사의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증폭될수록 수집의 범위와 종류는 다양해졌고, 이는 19세기 말 근대의 프랑스가 세계의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문명계승의 선구자이자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박물관의 소장품 확대와 기증’이라는 형태로 구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 당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박물관의 수집품 확대를 위해 외교사절을 적극 활용하고 의뢰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였다.<sup>9</sup>

예컨대 세브르도자박물관은 1806년 설립 이래, 각국의 도자유물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플랑시공사가 상당량의 한국 도자를 세브르에 기증하기 이전부터 여행자 수집가들이 합류하거나 각국 공사관들의 협력 하에 세계 도자들이 수집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도자유물은 1851년 駐상해 공사를 역임했던 찰스 몽타니(Charles de Montigny, 1805~1868)에 의해 최초로 단 2점이 기증되었으며,<sup>10</sup> 몽타니공사의 기증내역은 이후 플랑시공사로 하여금 그 조류를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었다.

이를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19세기 말엽, 그가 이미 세브르박물관의 소장가모임(Cercle des collecteurs du Musée de Sèvres)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며<sup>11</sup> 조선 재임에 앞서 중국에

<sup>8</sup>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25年 5月 13日·15日과 플랑시 서신, Séoul, le 1e mai 1889(4W559), Archives du Musée Sèvres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 외 엄승희, 「근대기 한불의 도자교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5(2014), pp. 9-13; 엄승희, 「근대기 세브르도자박물관의 한국 도자 소장품 수용: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9(2015), pp. 265-268.

<sup>9</sup> 진인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2007), pp. 303-324.

<sup>10</sup> 이종민,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성격과 의의」,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p. 166.

<sup>11</sup> Stéphanie Brouillet, *Victor Collin de Plancy: La revelation de la ceramique coreenne en France, Roman D'un voyageur*, Roman D'un Voyageur, Victor Collin de Plancy, L'histoire des collections Coreennes en France (France: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2014), p. 17.



도 4 플랑시공사 문서철의 중국 여름궁(Palais d'été) 사진, 1885년 무렵(Archives du Musée Sèvres 제공)

체류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한국 도자기 일부를 수집하여 기증한 이력이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 도자 수집의 일부 출처가 圓明園(Palais d'été, 여름궁)으로 확인되어, 유물의 일부가 이곳에서 제공받거나 수습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도 4).<sup>12</sup>

세브르의 소장가모임은 근대기 세계의 도자를 수집, 애장하려는 관료 및 귀족계층의 동향을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플랑

시공사가 세브르박물관 이외에도 유럽 최대 동양박물관인 기메박물관에 한국 도자들을 기증하고자 했던 重因이 외교사절로서 국가임무(Mission. M. V. Collin de Plancy)의 일환으로 수행된 일면을 넘어, 당시 이러한 조류를 직간접적으로 용인한 그의 의지가 돋보인다.

두 번째로는 그의 개인적인 문화적 취향과 자국의 동양어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약 10년간의 중국 북경에서 외교 임기를 마친 이력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는 동시기 세브르박물관의 도자유물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임무를 담당했던 중국학자 아나톨 앙드레 빌르캥(Anatole Adrien Billequin, 1836~1894)의 중국도자 연구가 한국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향후 플랑시공사가 그와 함께 한국 도자들을 인식하고 수집, 기증하는데 기여하고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3</sup> 실제로 플랑시공사의 기증 이전, 세브르 관계자는 빌르캥을 통해 상당량의 중국도자 수집을 의뢰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도자와 일본 도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동양학을 전공한 두 인물은 그들의 관심에서 공유할

<sup>12</sup> 'Chine Palais d'étéphotographie appartenir àM.Collin de Plancy'(P1000117~ P1000122); 플랑시공사 서신, Paris, 4 novembre 1887(4W57)-15 novembre 1887(4W48), Archives du Musée Sèvres. 圓明園은 중국 北京에 있는 청대 황실 정원으로서, 소위 圓明園, 長春園, 綺春園 3園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특히 장춘원 북쪽 건물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西洋樓로 세워져 매우 특징적이다. 이 정원들은 1860년 영-프 연합군의 침공으로 문화재 대부분이 약탈되거나 방화로 소실되었지만 최근 본래의 규모로 복원되었다.

<sup>13</sup> 아나톨 앙드레 빌르캥(Anatole Adrien Billequin)은 20대 후반까지 프랑스 미술공예학교와 고등공예학교의 화학교사로 재직하였으나, 1866년 중국 정부에 의해 베이징 同文館 화학과 교수직을 맡았으며, 이때 중국도자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 있었던 동양의 도자들을 수집하는 범주를 넘어 연구로 이어졌다.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입성한 플랑시공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켜 나갔다. 그가 대면한 한국 문화재는 비단 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회화, 불교미술, 古書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졌다.<sup>14</sup> 그러나 도자유물이 다른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 2장에서 밝힐 가마터 발굴의 참여와 그의 동료들과의 전국 순회를 통해 한국 도자원류를 파악하려던 지적 호기심이 적극 반영되었다.

따라서 플랑시공사가 한국 도자를 인식하는 전개과정은 근대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기반한데서 출발하며, 여기에 개인적인 취향과 경력, 관심도가 일부 프랑스 조력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사되면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제국주의의 우월의식이 적극 반영된 근대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미지의 국가인 한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반적으로 한국 도자를 동양도자의 일부로서 수용하여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일말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은 플랑시공사의 기여를 통해 그 정체성이 인식되고 확장되었다.

### III. 플랑시공사의 對조선 도자의교

#### 1. 한국 도자수집에 대한 專意一念의 여정

##### (1) 수집과 발굴

플랑시공사는 1886년 초대 프랑스 대리공사로서 조선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1905년 조선을 떠났으며, 이 중 대략 6여 년간 모로코, 일본과 자국에 머문 기간을 제외한다면 총 13년간을 조선에서 체류했다. 그가 조선에서 도자기와의 인연을 맺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전술하였듯이, 수교이후 조선과 프랑스의 비준 기념으로 각국 도자기들을 교환하는 과정을 성사시키

<sup>14</sup>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필사본장서부에 보관된 고서적과 고지도 유일본, 희귀본 등은 총 134종, 306책이 소장되어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한국 古書誌들 역시 대부분 1887년 이후 플랑시공사가 수집한 것으로, 1911년 경매를 통해 구입되었다. 한지희 외,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Vol69(2017) 참조.

는데서 시작되었다.<sup>15</sup> 이후 프랑스의 고급 백색자기들이 대한제국기 황실용 서양식기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에 따른 면세청탁을 의뢰하거나 원활한 수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한 정황들이 구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파악된다.<sup>16</sup>

그는 조선에서 안정적인 공사생활이 시작될 무렵 본격적으로 한국의 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으며, 도자의 경우 그 관심의 범위가 날로 증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랑시공사가 처음으로 한국 도자들을 접하고 이를 실제 수집하게 되는 과정은 국내 사료분석을 통해 그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 도자의 수집과정과 자국으로 유입시키는 상황 및 프랑스 정부와 박물관측의 요구, 정책적인 부분 등은 그가 남긴 수많은 서신과 공문서 그리고 자국 박물관의 수집목록집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 단서들에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의 도자유물들을 수집하였고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실과 타협하거나 의뢰한 부분, 수집된 각종 도자들을 연대별로 감식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물론 이들을 프랑스로 보내기 이전의 관리와 자국에의 보고 등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플랑시공사는 한국의 도자들을 단순히 수집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자국이 확보한 문화유산의 기여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도자생산의 지역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유명 도요지를 순례하고 탐방했던 그의 의지와 행적은 다방면에서 증명된다.

그가 조선의 도자를 집중 수집하기 위해 고려, 조선의 도요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대략 1888년을 전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무렵은 개항과 더불어 조선을 방문, 체류한 구미열강의 다양한 계층 인사들이 소위 중국적 양식을 일컫는 쉬느와즈리(Chinoiserie)의 여파와 자포니즘의 영향으로 조선의 각종 도자들을 수집, 감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때였다. 이미 중국과 일본 도자를 경험한 이들은 우선적으로 고려청자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그 열기는 날로 높아갔음이 각종 기록물을 통해 알려져 있다.<sup>17</sup> 대표적으로 관립법어학교의 교사와 경성제국대학교수를 지낸 에밀 마르텔(Emile Martel, 馬太乙, 1874~1949)이 쓴 회고록은 플랑시공사가 1894년경 이미 고려청자 수집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하면서, 이전부터 고

<sup>15</sup> 각주 8을 재인용.

<sup>16</sup> 高宗 26年 2月 19日 「法國人法竦의 所有物 및 磁器에 對한 免稅請托의 件」, 高宗 25年 10月 18日 「法國大統領에의 寄贈品에 對한 免稅依頼件」, 高宗 25年 10月 19日 「同上寄贈品에 對한 免稅構處件」,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19(法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pp. 10-11, 52.

<sup>17</sup> 이 시기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고려청자 매입과 거래, 동향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윤정, 앞의 논문, 재인용.

려청자가 음성적으로 다수의 서양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조선에 왔을 때에는 이렇다 할 재미있는 골동품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프랑스 공사 플랑시씨의 집이나 미국 공사 알렌씨의 집에서 처음으로 고려자기를 觀賞하게 되면서 나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러한 고려자기 花瓶, 壺, 皿, 鉢과 같은 종류는 경성의 거리를 아무리 걸어도 어떠한 골동상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하려 해도 좀처럼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나니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조선인이 계속해서 매도하려 오는 바람에 점차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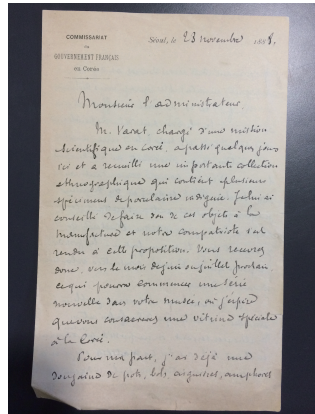
이밖에도 1884~1885년 조선 주차 영사를 지낸 윌리엄 칼스(William Carles, 1848~1929)의 『조선풍물지(Life in Korea)』(Macmillan, 1888)에서도 저자 자신이 서울에서 고려청자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의 파견의뢰로 한국 미술품을 수집했던 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호러스 알렌(Horace Allen, 1858~1932) 역시 서울과 개성에서 부장유물로서 고려청자들을 매입한 사실이 스미소니언의 컬렉션리스트에 표기되어 있다. 이상의 서양 외교사절들의 청자 수집 활동시기는 대략 1881~1885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져, 이는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은 편이다. 플랑시공사의 한국 도자 수집 역시 이러한 조류에 힘입어 점차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한국 도자 수집은 1880년경부터 오쿠라 키하치로(大倉喜八郎)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장가를 제외하면,<sup>19</sup> 청일전쟁(1894~1895)의 발발 전후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수집의 발로는 고려의 古都인 개성에 주둔한 일본군과 관계자들의 주도 하에 고려고분들이 발굴되면서였다.<sup>20</sup> 비록 일본인 관학자와 연구원들의 발굴력은 초기단계에 머물렀지만, 이 시기 일본인들의 발굴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로 비대해졌으며, 각 고분과 가마터를 통해 발굴된 각종 도자유물들은 빠른 속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발굴 정황은 앞서 한국 도자에 관심을 기울인 플랑시공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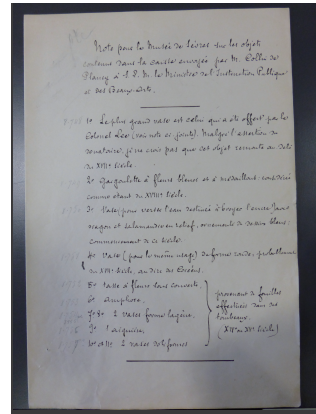
<sup>18</sup> 小坂貞雄, 『私の骨董蒐集』, 『外人の觀たる 朝鮮外交秘話』(朝鮮外交秘話出版會, 1934), p. 297.

<sup>19</sup> 『考古界』 3-2 (考古學會, 1903, 7), p. 28.

<sup>20</sup> 특히 야마요시 모리요시(山吉盛義)는 일본 관료로서 당시 조선에 건너와 수많은 고려청자 가마터를 발굴하는데 참여하고 주관했던 인물으로서, 그에 관한 내용은 플랑시공사의 공문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각주 3을 재인용; 플랑시공사 공문, 9e carton, 3e dossier, no 10, Médiathèque de Troyes 참조.



도5 플랑시공사의 서신원본, 1888년 11월 23일, Séoul(Archives du Musée Sèvres 제공)



도6 플랑시공사의 도자수집목록 노트, 1889년 1월 7일, P1000066 (Archives du Musée Sèvres 제공)

〈 표 1 〉 플랑시공사가 수집한 한국 도자 목록 : 1889년 1월 7일 도자수집목록노트 기준<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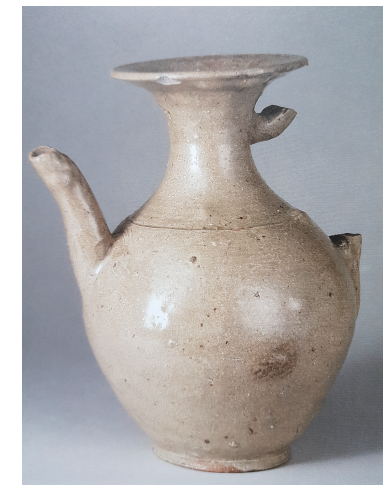
유물번호	시기	원본 표기	국문 표기
8748	17세기	Le plus grand vase	가장 큰 병
8747	17세기	Gargoulette à fleurs bleues et à médaillons	푸른 꽃과 원형장식이 시문된 질그릇
8750	19세기 초	Vase(pour verser l'eau destinée à broyer l'encre) avec dragon et salamandre en relief	용과 도마뱀이 양각되고 청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병(도7)
8751	17세기	Vase(pour le même usage) de forme ronde	둥근 형태의 병
8752	14세기 후반	Tasse à fleurs sous couverte	유약아래 꽃장식이 있는 잔
8753	고려	Amphore	암포라 <sup>23</sup>
8754	통일신라	2 vases forme lagène	라젠느술병 형태의 병 2점
8755	12-13세기		
8756	11세기	l'aiguière	물병(도8)
8757	고려	2 vases jolis formes	예쁜 형태의 병 2점

는 이 시기 단순 ‘수집’이 아닌 일본인들의 ‘발굴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며,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적극 활용하려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플랑시공사가 처음부터 한국 도자를 가마터(혹은 고분) 발굴을 통해 획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최초로 조선의 가마터 발굴을 시도한 사례는 1888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작성한 서신을 통해 밝혀졌다(도 5). 이 서신은 그가 향후 조선에서 가마터 발굴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임에 분명하다. 이 서신을 참조하면, 그는 조선 정부에 가마터 발굴허가를 의뢰하였으나 결국 認許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sup>21</sup> 주목되는 점은 최초 발굴 인허를 받지 못한 이듬해인 1889년 1월, 그가 작성한 도자수집목록노트를 살펴보면 새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도 6). 이 노트에는 통일신라 토기 및 고려 전반에 걸친 청자 4점(유물번호 8752-8757)과 조선백자 4점(유물번호 8747-8751)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이들은 1889년 6월 26일자로 세브르박물관에 모두 기증되었다(표 1).



도7 백자해태장식사각연적, 17세기, 129×99×99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 (프랑스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소장한 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137)



도8 청자주자, 11세기, 229×110×822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 (프랑스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소장한 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32)

<sup>21</sup> “...s'il était permis de fouiller les anciens tombeaux, on arriverait à composer une série qui donnerait des termes de comparaison, mais c'est la une chose impossible.” 플랑시공사 서신, Séoul, le 23 novembre 1888(4W57),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22</sup> 이 기록물은 플랑시공사가 공교육예술부 장관에게 보낸 노트로서, 내용은 세브르박물관에 보낼 상자에 담긴 도자에 대해 상세 설명을 담겼다. 1889, 1, 7(4W389, P1000066),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23</sup> 암포라(Amphore)는 고대 그리스의 물병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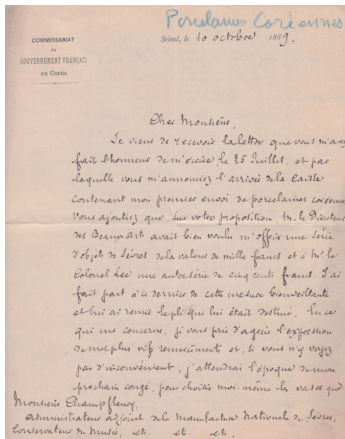
이 기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가 가능한데, 우선 그가 당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마터 발굴에 최초로 성공하여 도자를 직접 수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이미 누군가에 의해 ‘발굴되어진 유물’을 구입했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실제 발굴 성사의 진위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일면이 있다. 다만 필자는 수집품 가운데 정선된 청화백자가 포함되고 대부분 완품이면서 유물들의 시대적 격차가 큰 점 그리고 수집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발굴을 통한 수집보다 구입에 따른 수집에 무게를 실어둔다.

그럼에도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선을 잠식하려 했던 일본인 신분이 아닌 서양인 관료로서 도자기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 가마터 발굴을 시도하고 접근하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획기적이지 않을 수 없다.<sup>24</sup>

따라서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고분 및 가마터 발굴시도는 조선 말기로부터 서서히 감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시기 조선 정부의 문화재 관리와 법적 제재는 제도적 장치를 거의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문화재의 관리법안 구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조

선 정부의 미비한 정책과 구조방안들은 외세에게 귀중한 문화재를 해외로 손쉽게 유출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다. 특히 비합법적 발굴에 대한 규제방안이 제정되지 못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상상외로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실정이 반영된 이유에서인지, 최초의 가마터 발굴을 시도한 지 불과 1년 남짓한 1889년 10월에는 플랑시공사의 주도로 실제 발굴에 본격 착수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도 9). 당시 그는 여러 가마터의 발굴 과정에서 수습되는 다양한 도편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재결합시켜 완형을 복구하려 했으며, 발굴 유물들과 유사한 청자들을 가마터 이외의 다른 곳에서까지 구입하여 완벽한 견본자료들을 갖추려 하였다.<sup>25</sup> 또한 이를 정리한 연



도 9 플랑시공사의 서신원본, 1888년 10월 10일, Séoul(Archives du Musée Sèvres 제공)

<sup>24</sup> “...De mon côté, je poursuis un certain nombre de fouilles qui m'ont déjà fourni une grande quantité de fragments du plus vif intérêt et permis de restituer une sorte de chronologie dans les étapes de la fabrication...”, 플랑시 서신 Séoul le 10 octobre 18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25</sup> “...La réunion des fragments ne m'empêche pas de rechercher des spécimens plus complets. Outre ceux que j'ai pu trouver dans le sol, j'ai acquis deux jolis vaes fort anciens, l'un notamment de forme lagène, décoré de charmants bouquets blancs sous émail céladon et

구노트(les notes archeologiques)를 자국 박물관에 순차적으로 보내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발굴들은 벌써 내게 흥미로운 도편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제작과정에서 일종의 연대를 복원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서 흙의 예술은 처음에 추정했을만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었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도 분명 나처럼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상, 가능한 한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고고학 연구노트를 전달할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더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거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즉시 내가 이르게 될 결론에 대해 알려주겠다...”<sup>26</sup>

그러나 그는 한국 도자원류를 인식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것이 분명했다. 당시 조선의 고위관직, 識者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동서양의 각종 도자사 문헌들을 참조하였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겪었다.<sup>27</sup> 물론 이 상황에서도 그의 발굴작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밀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발굴 횟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규모와 수습유물의 양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sup>28</sup> 특히 동시기 트로와 메디아테크 아카이브에 보관된 그의 서신 내용 일부에는 플랑시공사가 가마터들을 발굴할 때 도편 수습을 철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근의 가마터와 陶製所를 탐방하면서 유사도편을 수집하거나 요업활동을 관찰하였다고 기록되었다. 한 예로, 그의 서신에는 ‘전도(Jondo)’라고



도 10 19세기 말엽 조선의 도제소 전경(colline plancy doss3 piece 18, Photo Mediatheque Jacques Chirac, Troyes Champagne Metropole, Archives du Médiathèque 제공)

une trentaine d'autres échantillons que je réserve au musée, mais que je garde provisoirement comme types, pour m'aider dans ma classification...” 플랑시 서신 Séoul le 10 octobre 18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26</sup> 플랑시 서신, Séoul le 10 octobre 18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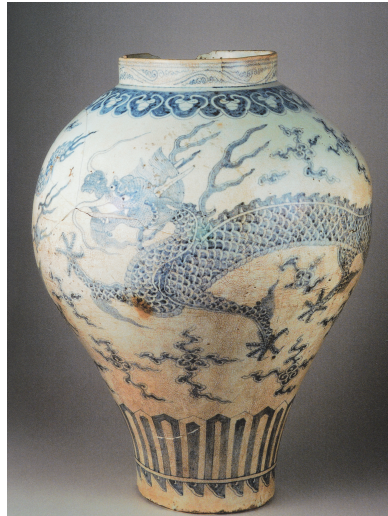
<sup>27</sup> 각주 26을 재인용.

<sup>28</sup> 관련 자료는 세브르박물관 아카이브 이외에도 프랑스 트루와 메디아테크 플랑시공사 전문 문서실의 문서번호 9c carton, 3e dossier(no 5, no 8, no 10) 등에 남아있다.

표기된 지방 가마터를 발굴한 후, 근방의 도기 가마터와 제작소를 재차 탐방하면서 유사 도편들을 수집하였다고 기록되었다(도 10).<sup>29</sup> 이외에도 이 무렵 그의 서신에는 일본 관료출신이자 고려청자 수집가인 아마요시 모리요시(山吉盛義)와<sup>30</sup> 동경제국대학 교수를 지낸 영국학자 바질 홀 챔벌레인(Basil Hall Chamberlain, 1850~1935)의 저서 『일본의 물건들(Choses du Japon)』<sup>31</sup>을 언급하고 있어, 그가 당대 일본인 관료와 일본에서 동양학을 전공했던 서양학자들 간의 유대가 돈독했음을 시사하면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프랑스로 도자유물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기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유물들을 자국에 수송하기 이전부터 수송할 유물들이 모두 존귀한 가마터 발굴 작업을 통해 수습된 것임을 강조하고, 프랑스 박물관 및 제작소 관장을 통해 많은 유물들이 온전하게 수송되기를 요청했다.<sup>32</sup>

한편 발굴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된 도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국내외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가 적어도 발굴에 참여하게 되는 1889년을 전후하여 확보한 수집품들은 조선 왕실로부터 하사 받은 <청화백자운룡문호>를 비롯하여(도 11) 서울과 각 지방의 전문 골동상과 방문 골동상 등을 통해 합법



도 11 청화백자운룡문호, 18세기 후반, 60.2 × 22.2 × 18.8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프랑스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소장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 111)

<sup>29</sup> 근대기 외국인들의 문헌에는 한글을 음차표기하여 원어와 거리가 먼 것들을 터러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서신에 표기된 '전도(Jondo)'를 당시의 한국 지명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전남 珍島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논문에 수록한 사진은 현재 미디어테크 플랑시전문자료관에 서신과 함께 소장되어 있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플랑시 공문, 9e carton, 3e dossier no 10, Archives du Médiathèque.

<sup>30</sup> 각주 3, 20을 참조.

<sup>31</sup> 이 책은 영문판인 'Things Japanese : being notes on various subjects connected with Japan for the use of travellers and others'(London : J. Murray, 1905)으로도 발간되었다.

<sup>32</sup> "...Pour l'instant, je prie M. Le directeur, de veiller à ce que chaque objet soit déballé avec soin et à ce qu'on en rapproche les morceaux qui doivent le compléter, dans le cas où il s'agirait d'un vase brisé. Plusieurs d'entre eux, en effet, me sont parvenus assez endommagés et on ne s'en étonnera pas, si on veut bien se rappeler que tous les spécimens anciens proviennent de fouilles..." 플랑시공사가 세브르 도자제작소 관장에게 보내는 공문, 21 juillet 1891(4W3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적 거래절차를 거쳐 수집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외에 자의든 타의든 조선인과 일본인들에 의해 발굴된 가마터의 발굴품들을 직거래 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sup>33</sup> 이러한 그의 한국도자 수집, 발굴실정은 일제의 조선 통치권 압박이 점차 치열해지던 20세기 극초기, 조선의 政勢와 일신상의 사유로<sup>34</sup>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sup>35</sup>

## (2) 기증과 제작

플랑시공사가 매입 및 발굴을 통해 수집한 도자유물들은 19세기 말엽, 단계별로 원활하게 자국 박물관에 수송되어 기증되었다. 근대기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세계 각지로 파견나간 외교인사들로 하여금 세계 문화재의 수집과 기부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플랑시공사 또한 이에 동참하였다. 단, 그가 1886년 이후 한국 도자들을 꾸준히 수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수집품들이 곧바로 자국 박물관으로 기증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887년부터 대략 2여 년간 자국과의 도자교류를 살펴보면, 이 시기가 한국 도자의 기증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1889년경에 이르면 한국 도자들은 본격적으로 프랑스로 수송되었고 수송이 완료된 유물들은 박물관 기증으로 이어졌다. 실상 플랑시의 기증 이전에는 프랑스 박물관에서의 한국 도자 컬렉션은 매우 빈약했다. 한국 도자사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플랑시공사는 그와 함께 조선을 탐방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조력자들의 중개를 통해 한국 도자들을 일부 박물관에 기증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폭을 확대시켰다.<sup>37</sup>

이 시기 그의 기증은 그가 이전에 작성한 도자유물수집목록노트를 토대로 선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에 시대별, 기종별, 유형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증의 절차는 각 기관 관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했을 것이다. 예컨대 세브르박물관에 기증한 플랑시의 유물들은 목록대장을 통해 자세히 그 기록을 알 수 있다(도 12). 이 기록에는 기증될 유물의 정확한 명칭은 없으나 유물번호와 분량, 기종, 사이즈, 연대는 물론 간단한 양식적 특징을 명시하였다. 예컨대 '무유 도기', '다리가 잘린 화병', '뚜껑이 없는 항아리', '상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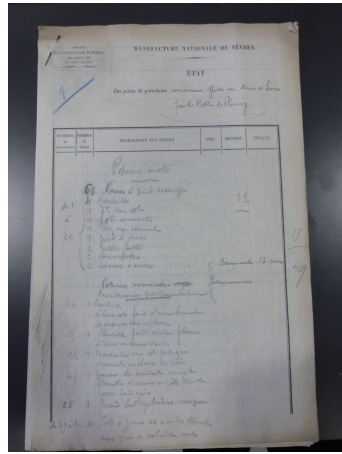
<sup>33</sup> 小坂貞雄, 앞의 책, p. 297.

<sup>34</sup> 19세기 말, 플랑시공사는 고종을 알현하고 열강으로 하여금 조선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도가 철도, 광산과 같은 이권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그 역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뫼텔주교일기』 1897년 4월 2일.

<sup>35</sup> 플랑시공사의 관리자 서신, 5 septembre 1908(문서번호 없음),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36</sup> Stéphanie Brouillet, 앞의 논문, p. 19.

<sup>37</sup> 엄승희, 「근대기 세브르도자박물관의 한국 도자 소장품 수용 :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9(2015), pp. 273-279.



도 12 플랑시공사의 유물기증목록대장, 19세기 말엽(Archives du Musée Sèvres 제공)

장식한 도자기’, ‘대형 원통형 사발’ 등과 같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유물명칭을 기재하였다.<sup>38</sup> 이러한 기록만으로도 그의 유물 수집의 범주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며, 기메박물관의 기증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약 1889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1894년까지 그는 자국에 한국 도자를 유입하면서 동시에 홍보와 인식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기증품들은 향후 기메박물관과 세브르박물관의 한국관에 진열되었고, 무엇보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정체성과 동양 도자사에서 한국 도자의 위치를 프랑스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그의 기증이력은 1895년경에 이르면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 근거는 각 박물관 아카이브의 서신과 공문 등에 기증, 수집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전에 빈번하게 전달되었던 수집기록대장들 역시 더 이상 프랑스 당국에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1895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였다. 추정하건데,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의 외교공사가 활발하게 가마터를 발굴하거나 수집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이며, 설령 각종 도자들이 수집, 발굴되었어도 자국으로 수송하는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가능성과 이외 對조선 외교적 입장, 개인적 관심도 및 신변상의 변화 등에 따라 서서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가 기증한 다양한 한국 도자 중에서도 고려청자는 단연코 압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세브르제작소에서는 그가 세브르박물관에 기증한 각종 청자들을 模本으로 하여 세브르 독자양식의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였고, 이는 실제 제작되어 약 1920년대까지 호평을 받았다. 예컨대 조셉 쉐레(Joseph Chéret, 1838~1894)가 디자인하고 한국의 지명인 ‘蔚山’을 차용하여 제작한 ‘울산화병(Vase Oul-San)’은 조선 민窯에 관심이 지대했던 플랑시공사가 울산에서 수집한 도자를 세브르도자제작소로 보내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한 제품군 중에 일부였다(도 13, 14).<sup>39</sup> 이 같은 현상은 당시 한국 도

<sup>38</sup> 플랑시공사의 유물기증목록대장,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39</sup> Musée national Adrien Dubouché, *Exposition temporaire Corée, 1886. Roman d'un voyageur*(2016), p. 11 ;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Roman d'un voyageur*, Victor Collin de Plancy, L'histoire des collections Coreennes en France (2014), p. 96.



도 13 울산화병 Vase Oul-San, 20세기 초, 15.3×9.6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Roman D'un Voyageur,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p. 98)



도 14 울산화병 도안, 1908(Corée, 1886 Roman d'un voyageur, Musée national Adrien Dubouché Limoges, p. 11)



도 15 파리만국박람회 근대도자출품작, 1900, 프랑스 기술공예박물관 소장(엄승희촬영)

자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플랑시공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일부나마 수용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그의 기증품들은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설치된 한국관에 전시될 수 있었다. 플랑시공사는 1895년 이후 도자수집과 기증의 여백을 이 박람회를 통해 다시금 되살리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박람회에 출품된 한국 도자들은 크게 도자유물과 근대도자로 구분되어 전시되었다.

그가 세브르박물관에 기증한 도자 일부가 전시되었을 때, 그의 동료였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Le pavillon coréen au Champ-de-Mars*」에 서술한 회고글에서 당시의 전시품들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sup>40</sup> 전시품 중 근대도자들은 조잡하지만(도 15) 고려후기 상감청

<sup>40</sup> “...M. Collin de Plancy, chargé d'affaires de France en Corée, don't les collections ornent l'exposition coréenne, par un don fait

자들은 프랑스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의 도자기를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이들 전시품들이 플랑시공사가 세브르박물관에 기증한 자신의 수집품들로서,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도자기 생산품들에 대해 알리도록 기여했다고 밝혔다. 실제 플랑시공사는 파리만국박람회 참가 추진을 적극 협조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으며, 이 박람회에 출품될 다양한 한국 문화재를 선별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sup>41</sup>

이와 같이 플랑시공사의 기증품들은 근대기 한국 도자를 프랑스 내부에 인식시키기에 다방면에서 손색이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수집하여 자국에 기증한 한국 도자는 약 700여 점 이상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한국 문화재 수집품(약 2,500여 점 추산)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의 조력자였던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와 모리스 쿠랑, 에밀 기메(Émile Guimet) 등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한국 도자들은 프랑스의 각 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에 이른다. 특히 그의 수집품들은 시대별, 기종별로 중첩 소장되는 것을 피하고,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한국 도자들이 전시되기를 희망했던 그의 요청을 세브르도자제작소 관장이 수렴하여, 세브르박물관을 비롯한 기메박물관(galerie coréenne de M. Varat), 루앙도자박물관(musées céramiques de Limoges et de Rouen) 등으로 분산 기증될 수 있었다.<sup>42</sup>

## 2. 도자사 연구의 참여

19세기 말엽, 플랑시공사에게 있어서 한국 도자사 연구는 매우 쉽지 않은 접근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도자기에 대한 존재감과 정체성이 드러난 부분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사는 중국도자사의 맥락에서 일부분 다루어졌을 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 간에는 동양 도자사의 원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 도자를 중국 도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 도자사 연구는 극동 지역 도자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중국, 일본, 한국의 서로 다른 도자 전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다.

au musée de Sèvres a permis aux amateurs français de se faire une idée de ces produits céramiques nouveaux pour eux..” Maurice Courant, *Le pavillon cor en au Champ-de-Mars*, Exposition Universelle Internationale de 1900 a Paris (Paris:Imprimerie Nationale, 1902, vol.1).

<sup>41</sup> *Liste D’Objets Exposes*, Lors de L’Exposition Universelle de 1900 A Paris(Paris:France, 1900) 참조.

<sup>42</sup> 플랑시공사 서신, Tokio, 21 juillet 1891(4W3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가 한국 도자사 연구를 주선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중국 도자 전문 미술사가이자 수집가였던 알베르 자끄마르(Albert Jacquemart, 1808~1875)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의 도자 교류를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의 도자는 동아시아 3국에서 선구자적인 입장이었고 그 영향이 일본에 강하게 미쳤다고 규정했다.<sup>43</sup> 또한 중국학자 스타니슬라스 줄리앙(Stanislas Julien, 1797~1873)이 1856년 출간한 『중국자기의 역사와 제작(Histoire et fabrication de la porcelaine chinoise)』에서는 중국 사신인 徐兢의 여행 보고서 『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거하여 ‘산예출향(狷出香)’을 극찬한 듯한 서술이 보여, 그 역시 한국의 발달된 도자기술을 부분적으로 주목했다.<sup>44</sup>

반면 동시기의 중국미술사가인 오 뒤 사르텔(O. Du Sartel)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확고한 역설을 펼쳤다. 중국과 일본 도자의 설명서를 출간할 만큼 동양도자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그는 중국 도자가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전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이 가교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도자가 조선의 사기장인들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조선의 앞선 자기 제작기술을 궁극적으로 곡해했다.<sup>45</sup>

이 같이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학자들의 정립되지 못한 한국 도자원류사 분쟁은 플랑시공사가 조선에 체류하면서 한국 도자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토대의 필요성을 새롭게 통감했고 나아가 그와 친분이 있던 학자들에게 연계되어 학문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서 한국 도자사 연구는 이전 학설들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보다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플랑시공사는 선행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주목했던 것이 분명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한국 도자사 연구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 과제였고 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발굴유물과 수집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비록 조선에서 시작된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동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19세기 말, 새로이 시도됐다는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또한 플랑시공사 개인적으로는 조선에 정착하기 이전 문헌자료로만

<sup>43</sup> Albert Jacquemart, *Les merveilles de la céramique ou L’art de façonner et décorer les vases en terre cuite, faïence, grès et porcelaine, depuis les temps antiques jusqu’à nos jours* (Tome I, Orient, Hachette, Paris:France, 1866), p.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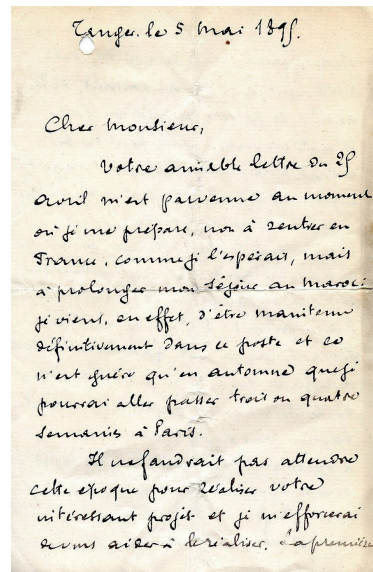
<sup>44</sup> ‘...Mais les tasses en forme de courge et les jarre en forme de lion sont regardees comme fort remarquables...’. Stanislas Julien, *Histoire et fabrication de la porcelaine chinoise* (Mallet-Bachelier, Paris, 1856), p. 35; Anatole A. Billequin, *Note sur la porcelaine de Corée*, *T’oungpao*, Vol.7 (1896), pp. 43-46.

<sup>45</sup> O. Du Sartel, *Le porcelaine de Chine* (Vve A. Morel & cie, 1881), p. 14; O. Du Sartel, *Porcelaines de la Chine et du Japon* (Paris, 1882), pp. V-XVII.

알고 있던 한국 도자원류를 조선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새롭게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또 다른 시각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 연구를 진행하던 초창기인 1889년 무렵, 그의 서신을 통해 도자사 조사, 연구는 관련 문헌과 식자의 부재 등으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조선의 토착 도자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 육어듬에 둘러싸인 듯이 느껴진다. 안내(guide) 없이 걸어야 한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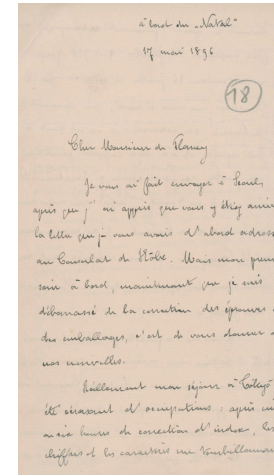
그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물의 고고학노트를 더욱 철저히 정리하여 자국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국 도자사를 연구할 학자를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



도 16 플랑시공사의 서신원본, 1895년 5월 5일(Archives du Musée Guimet 제공)

빌르캥의 한국 도자사 연구는 플랑시공사의 추천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sup>47</sup> 빌르캥은 플랑시공사의 의뢰로 한국 도자의 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국 문헌을 수집해 나갔고, 세브르박물관에 보내진 한국 도자들을 분류하여 그 원류를 찾으려 노력했다. 기메박물관 아카이브에 보관된 플랑시공사의 서신에는 그가 빌르캥을 통해 한국 도자사가 앞선 연구 보다 좀 더 진척되기를 학수고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 16).<sup>48</sup> 결과적으로 빌르캥의 논문은 고려청자에 대해 『고려도경』을 인용하고 ‘翡色’의 존재성을 일부 밝히기도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는데 도달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다양하고도 시대적 고찰이 가능한 한국 도자의 실견과 관련 지식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그의 동료인 모리스 쿠랑 역시 그를 도와 한



도 17 모리스 쿠랑의 서신원본, 1896년 5월 17일(collin de plancy doss3 piece18, Photo Mediatheque Jacques Chirac, Troyes Champagne Metropole, Archives du Médiathèque 제공)



도 18 백자청화소주굴씨묘지, 1698년, 20.2×14.6×1.3cm, 세브르도자박물관 소장(프랑스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소장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p.100)

국 도자사 원류를 분석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서지학자였던 쿠랑이 플랑시공사가 수집한 장서에 관심을 보이다 집필하게 된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 1894~1896)의 발간 시점을 전후하여,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들에는 한국 도자에 대한 궁금증과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트로와 메디아테크 아카이브에 보관된 서신들에 의하면, 명문이 있는 도자의 편년을 추정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거나

각종 도자의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여실이 드러나 특별히 주목된다(도 17).

예컨대 쿠랑은 명문이 있는 瓶을 희귀유물로 여기고 투사지를 이용해 器面의 명문을 옮길 정도로 연구사에 관심이 컸으며, 이를 자국의 각하(Monseigneur)에게 전달하려 했다.<sup>49</sup> 세브르박물관 소장의 <소주굴씨 백자묘지> 역시 한문 번역이 가능했던 쿠랑과 플랑시공사가 이 유물에 대한 역사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구입, 연구한 유사 사례로 보인다(도 18).<sup>50</sup>

<sup>46</sup> “...je continue les investigations sur les ceramiques indigenes, mais plus je penetre dans les phases de fabrication, plus je me sens environne de tenebres: il faut marcher sans guide...” 플랑시공사 서신, Séoul le 10 octobre 1889(문서번호 없음), Archives du Musée Sèvres.  
<sup>47</sup> Anatole A. Billequin, 앞의 논문, pp. 39-46.  
<sup>48</sup> 플랑시공사 서신, 5 mai 1895, Archives du Musée Guimet.

<sup>49</sup> “...J'ai vu à? un vase coréen partout une inscription ??? : c'est un rare et peut-être unique specimen. J'ai pris un calque de l'inscription et vais ? envoyer un doubt àMgr. Mutal pour lui ? demander le sens, car cela un parait être du voir coreen...” 모리스 쿠랑이 플랑시공사에게 보낸 서신, 17 mai 1896, Archives du Médiathèque.  
<sup>50</sup> 세브르박물관 소장의 <소주굴씨 백자묘지>를 연구하는 문화재청의 박경자선생 자문을 받았다.

### 3. 陶製기술과 공예교육의 도입

플랑시공사와 근대전환기의 조불 도자외교에서 주목되는 것 중 일부는 프랑스 도제 기술 및 교육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원 민영화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된 요업기술들이 한반도에 진입했으나 그 기술력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자기 제작과 일부 기법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외세에 의해 본격적인 유러피안 도제기술의 도입은 플랑시공사가 추진한 工作學校의 설립과<sup>51</sup> 서울에 御器廠 개설을 통해 거의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52</sup>

다만 공작학교는 1897년 최초 설립을 추진하였다가 자금조달과 정부 간의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해 설립이 무산되었다. 플랑시공사는 이 학교의 설립을 통해 각종 서양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의 공예발전을 쇄신하고자 한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여기창은 단기간이기는 했지만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실제 운영되었다. 여기창과 관련하여 그가 남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유럽자기와 조선자기가 동시에 번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sup>53</sup> 그의 주선으로 레오포드 레미옹(Leopold Rémion, 조선명 萊米翁)을 세브르도자제작소로부터 고빙하여 기술력 전수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드러난다.<sup>54</sup> 당시 플랑시공사는 조선 사기장들의 제도술과 도제소 운영이 매우 원시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이루어진다고 절감하였고,<sup>55</sup>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서구의 앞선 근대 기술 유입과 유통의 체계화라고 판단했다.

그가 이처럼 프랑스로부터 자국의 도제기술을 유입시키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근대 산업자기를 제작하려고 했던 의도는 선진 기술력의 수용을 통해 낙후한 조선 요업을 일신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려는 의지와 조선백자를 비롯한 각종 공예품들을 서구의 근대기술을 활용하여 왕실 소용품으로도 손색없는 제품을 개발하려 시도한 점은 근대전환기 서구열강의 외교 관료의 활약상 중



도 19 백자금채이화문탕기, Pillivuyt, 19세기 말-20세기 초, 18×20.5×14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오얏꽃황실생활유물, 궁중유물전시관, p. 22)

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조선 말기 관요의 시대를 지나 민영화된 分院의 구조체제는 백자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켰고,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이를 만회하고 외교활동의 범주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비롯한 구미 각국으로부터 서양자기를 수입하였다. 프랑스자기들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 수입되었으며(도 19), 이 과정에서 플랑시공사는 자국 도자들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조선의 실태를 파악하여 서양자기에 비견할

만한 조선백자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협력했다.

이러한 그의 포부와 역할은 19세기 말, 일본의 내정간섭이 점차 악화되고 수구세력의 서구문화수용 한계로 인해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특히 공작학교 설립 무산은 舊本新參을 주창한 친러 수구파와의 외교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단기간 운영에 그친 여기창은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부터 해외 기술진 고빙의 재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재정적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플랑시공사는 조선이 처한 급박한 정세에서 고군분투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못한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 IV. 플랑시공사의 소임과 한국 도자문화 정체성 유포의 提高

### 1. 한국 도자문화의 활용과 기여도

근대기 플랑시공사는 한국 도자기 수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기반을 형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과 프랑스의 도자교류를 주도하고자 했다. 당시에 형성된 이러한 도자문화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조선의 요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없지만, 단순히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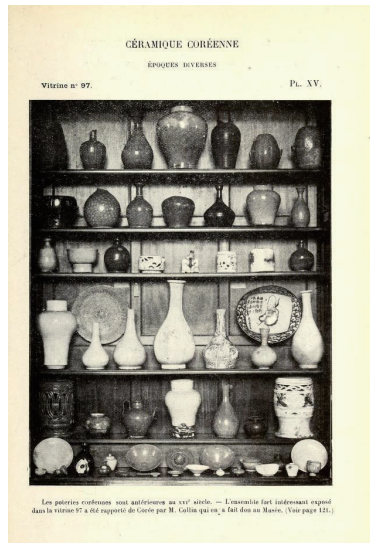
<sup>51</sup> 『農商工部來去文』1897년 12월1일; 『外國工匠雇聘의件』1896년 12월6일, 『구한국외교문서(法案)』19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9).

<sup>52</sup> 관련 기록은 『各府郡來牒』(宮內府 內藏院, 第6冊 1902, 10, 4. 1903, 4, 8. 6, 13. 7, 22, 第9冊 1905, 1, 21. 1, 2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國譯 荷齋日記』券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9), pp. 155-156 등을 참조.

<sup>53</sup> Victor Collin de Plancy, *Rapport de Monsieur L.R mion, inf nieur c ramiste de la maison imp riale de Cor e sur l'installation S oul d'une f adrique de porcelaine* (1903), pp. 1-2.

<sup>54</sup> 小村, 『韓廷雇外國人解備處分こ關スル件/機密五一號』, 『駐韓日本公使館記録』第24券(1904년 5월30일).

<sup>55</sup> “...Les potiers coréens se servent de ce tour très primitif avec habileté...” Victor Collin de Plancy, 앞의 보고서, p. 2.



도 20 세브르도자박물관의 한국관 전경. 19세기 말엽(Musee ceramique de Sevres, 1921, p.276)

양의 도자기를 수집하고 기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제작, 교육, 연구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하면서 일정 분야에서 프랑스 製陶術을 수용하거나 프랑스자기를 서양식으로 선택하는데 기여했다.<sup>56</sup>

플랑시공사가 한국 도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 서 도출시킨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프랑스에 한국의 도자원류를 소개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각 시대별 도자와 도편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했고 나아가 한국 도자사 연구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한국 도자들이 프랑스의 각 국립박물관으로 분산되어 기증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운송되어 매우 체계적으로 진열되기를 갈망했던 그의 포부는 동일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가 작성한 도자목록노트와 유물목록대장에서도 이러한 일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의 노력은 협소한

규모이기는 했지만 기메박물관과 세브르박물관에 한국관(도 20)이 최초로 설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도자들과의 비교자료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그가 이토록 한국 도자를 자국에 홍보하기 위해 헌신한 전략적 노력은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동양 도자의 강국에 밀려 외면된 바가 컸으며, 이러한 조류는 플랑시공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20세기 초기까지 별다른 이변이 없이 정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랑시공사가 근대기 한국 도자문화를 프랑스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성과는 동양의 도자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였고, 그 문화를 일시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세브르도자제작소는 新양식의 청자를 제작하거나 일부 학자들은 한국 도자사 원류를 논문을 통해 발표하는 등 학술로도 진척되었다.

이에 플랑시공사의 한국 도자와 도자문화의 수용 및 확산에 따른 기여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도자의 프랑스 내부 인식 지평은 물론 세계 속에서의 위

<sup>56</sup> 엄승희, 「근대전환기 사료를 통해 본 서양자기의 수입실태 연구」, 『美術史學』33(2017), pp. 136-145.

지와 위상을 표명하고자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였다. 근대의 한국 도자를 비롯한 도자유물들을 박물관과 만국박람회 석상에 진열하여 홍보하는데 협력적이었으며, 특히 조선에서 수집된 도자들은 프랑스의 박물관으로 기증되면서 그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권 국가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박물관 내부에 컬렉션을 형성하면서 동류현상을 보였다. 적어도 19세기 말엽에 이르면, 유럽에서의 한국 도자 컬렉션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 위치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sup>57</sup> 이른바 한국 도자가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역사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이 교체되어 주목되었다. 둘째, 다양한 한국 도자에 대한 조형적 미를 토대로 한국관 컬렉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형물을 탄생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셋째, 근대기 한국 도자를 접한 프랑스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확대하려던 일말의 노력과 성과를 보였다. 당시 연구대상으로서의 한국 도자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는 시대별로 수집된 도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통해 적어도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한국 도자사의 조사 성과물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원류사, 즉 중국과 일본에 경도되었던 동양도자사의 지평을 일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되었다.

## 2.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도자 위상확립

플랑시공사는 조선에 머물렀던 13년 동안 해박한 학문적 소양과 감식안으로 골동상점이나 가마터 등을 통해 한국 도자를 열정적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근대기에 수집된 그의 도자유물들은 전반적으로 질적 차원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구입한 그것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구미열강들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품격 있고 다양한 기형과 양식의 도자들을 집중 수집했던 것과는 동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근대 프랑스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수집하였지만 아시아 도자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 도자에 이미 매료된 프랑스가 극동아시아 3

<sup>57</sup> 김윤정, 앞의 논문, pp. 47-55.

국과의 도자교류가 활발했던 한국 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이 결여되었던 원인이 가장 컸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전반에 걸쳐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두 번째로는 플랑시공사 자신의 관심도와 신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조선에서의 근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도자들을 수집, 발굴하였던 그였지만, 19세기 말엽 이후 서서히 그 관심의 정도가 일부분 하락하기 시작하고 조선과 프랑스 정부의 또 다른 외교문제의 제안과 제의에 수긍하며 이를 우선적인 업무로 다루어야 했던 부분들이 일종의 변수로 작용하였다.<sup>58</sup> 세 번째는 근대전환기 일본 제국주의와의 대립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각종 도자유물들을 확보하거나 발굴, 도굴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일본의 관학자들이 內朝하고 전문 골동상, 수집가들이나 관료들까지 나서 명품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수집에 주력했다. 당시 이들이 수집했던 한국 도자들은 국보급 도자에서부터 가마터의 도편에 이른다. 이를테면 한국 도자원류의 계보를 총망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해 플랑시공사는 일본과 대적하면서 우수한 도자유물을 수집하기에는 자본, 국가적 협력 및 후원 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외교관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모든 풍물들을 수집하기 위해 조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조선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와 거의 필수불가결한 자금을 확보한 다음 그의 동료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서양인 관료로서 최초였다.<sup>59</sup> 그럼에도 이처럼 독자적인 행보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단절이 유도되던 상황에서 도자유물을 수집하는 그 자체에 일제의 암묵적 간섭과 압력이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플랑시공사가 한국 도자유물을 수집하고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는 한국 도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한 식자가 국내외에 부재했고 관련 서적들이 희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재현상으로 유물의 구입은 물론 발굴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와 애로를 겪었으며 진위여부와 선별 등의 문제에서도 난관에 봉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근대기 일본과 프랑스 제국주의 문화정책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제국주의적 문화재 수집은 단순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제국으로서의 권위와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본질

<sup>58</sup> 마르크 오랑주, 「콜랭 드 플랑시와 프랑스 자문관들」, 『Souvenirs de Séoul 서울의 추억』(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pp. 92-99.

<sup>59</sup> Pierre cambon, *Roman dun Voyageur Diplomatie Culturelle de Vara á Collin de Plancy Les Collections Coréennes du Musée Guimet, au XIXe Siècle*(Roman D'un Voyageur, Victor Collin de Plancy, L'histoire des collections Coreennes en France (France: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2014), pp. 9-11.

은 엄연한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는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비유럽 세계에 대한 서구 지배의 정당성과 문명의 우월성을 구현하는 범주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수집하고 이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소개하려하였다. 즉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가 동아시아에 진출하며 표방한 것은 타 열강의 정치적 경제심을 자극하지 않지만, 통상과 영향력만을 확대함으로써 半식민지화를 모색하는 소위 '무형의 제국'이었다. 이는 식민지 통치의 부담이 따르는 영토 획득보다는 비공식적 제국주의의 실리를 찾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한국의 문화재 수집을 식민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쟁취함으로써 문화기반의 말살과 훼손을 조장했다.<sup>60</sup>

플랑시공사는 근대 프랑스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 도자의 원류를 분석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데 일조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프랑스 자국의 헌신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다고 보기에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며, 오히려 플랑시공사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의지가 크게 반영되어 자국에 한국 도자의 정체성을 알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플랑시공사와 한국 도자문화 정체성 유포와의 상관성 이해를 위한 提高가 필요하다. 실지로 그가 수집, 기증한 한국 도자들은 근대기에 이르러 프랑스에 비로소 본격 소개되었지만, 앞서 프랑스 사회에서 애완품으로 자리 잡은 중국, 일본 도자에 비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규명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과는 미미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플랑시공사가 근대전환기에 조선에 입성한 이래 수집하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한국 도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하였다. 조선에 머물렀던 전 시기에 걸쳐 그는 한국 도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매우 치밀하게 조사하고 수집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도자외교라는 명분을 다분히 전략적으로 이끌어 낸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 배경은 근대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영향이 그의 도자외교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sup>60</sup> 플랑시공사는 주조 일본군을 궁극적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의 선봉이라고 판단했다.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48(2014), p. 25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경인문화사, 2008), p. 13.

다고 인정되지만, 한국 도자 수집의 체계적인 성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일면들과 도자 문화 및 기술력 도입, 교육기관 설립 추진 등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성과들은 이 시기 구미열강의 외교사절로서 구현하기 쉽지 않은 매우 특별하고 주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한국 도자 수집과 연구는 단순히 근세 이후 쉬누아즈리나 자포니즘의 반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근대 프랑스 제국주의의 시대적 요구와 무엇보다 그의 문화적 취향,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플랑시공사 한 개인이 조선에서 수집한 도자들의 유형과 자국으로의 기증과정을 살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기 한국 도자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수집, 발굴,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와 경로를 파악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문화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향후 프랑스의 각 박물관 아카이브에 소장된 한국 도자 관련 문서와 실제 유물을 보다 세밀하게 대조하고,<sup>61</sup> 이들의 유물론적 입장과 시대적 고찰을 거쳐 궁극적으로 미술사적 가치와 특징을 파악하며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필자 개인적으로는 근대기 한국 도자는 물론 동양도자의 수집과 기증에 선구적이었던 플랑시공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향후 해외 문화재의 국내외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자사학 분야에서 후속연구가 파생되기를 고대한다.

**\*주제어(key words)** 근대전환기(近代轉換期,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Korea),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한국 도자유물(韓國 陶磁遺物, Korean ceramics), 세브르도자박물관(Musée Sèvres), 기메박물관(Musée Guimet),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고종(高宗, Go-jong), 가마터 발굴(發掘, kiln excavation), 프랑스 문화정책(文化政策, French cultural policy),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 투고일 2019년 8월 14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25일 ▣

<sup>61</sup> 본 논문에서는 세브르박물관의 자료들을 토대로 플랑시공사의 활약상을 고찰하였으며, 이 역시도 방대한 유물과 문서를 지면상 모두 활용할 수 없었다. 이후 세브르를 비롯하여 기메박물관, 메디아테크는 물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문서와 유물들을 순차적으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各府郡來牒』

『高宗實錄』

『農商工部來去文』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뫼텔주교일기』

### 2. 한국어 문헌

『구한국외교문서(法案)』19, 20,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9.

김운정, 「근대 유럽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 배경」, 『한국근현대미술사학』36, 2018.

Norman F. Cantor 저; 池東植 외 공역, 『서양사 신문 II』, 법문사, 1979.

마르크 오랑주, 「콜랭 드 플랑시와 프랑스 자문관들」, 『Souvenirs de Séoul서울의 추억』,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國譯 荷齋日記』券6,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9

엄승희, 「근대기 한불의 도자교류」, 『한국근현대미술사학』25, 2014.

\_\_\_\_\_, 「근대기 세브르도자박물관의 한국 도자 소장품 수용 :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29, 2015.

\_\_\_\_\_, 「근대전환기 사료를 통해 본 서양자기의 수입실태 연구」, 『美術史學』33, 201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이종민,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한국 도자의 성격과 의의」,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진인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59, 한국프랑스학회, 2007.

한지희 외,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Vol69, 2017.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 일본군의 활동」, 『인문학연구』48, 2014.

### 3. 동양어 문헌

鹽田力藏, 「山吉氏の高麗陶器」, 『大日本窯業協會雜誌』93, 大日本窯業協會, 1890.

『考古界』3-2, 考古學會, 1903, 7.

山吉盛義, 『古高麗美痕』, 1900.

小村, 『韓廷雇外國人解備處分こ關スル件/機密五一號』, 『駐韓日本公使館記録』第24券, 1904, 5, 30.

小坂貞雄, 『私の骨董蒐集』, 『外人の觀たる 朝鮮外交秘話』, 朝鮮外交秘話出版會, 1934.

片山まび, 『いつ「高麗青磁」は誕生したのか? - 高麗青磁の初現に関する研究史解題』, 『高麗青磁の誕生-初期高麗青磁とその展開-』,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 4. 서양어 문헌

Billequin, Anatole Adrien. Note sur la porcelaine de Corée, *T'oungpao*, Vol.7, 1896.

Brouillet, Stéphanie. *Victor Collin de Plancy: La revelation de la ceramique coreenne en France, Roman d'un voyageur, Roman D'un Voyageur*, Victor Collin de Plancy, L'histoire des collections Coreennes en France, France: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2014.

Cambon, Pierre. *Roman dun Voyageur Diplomatie Culturelle de Vara áCollin de Plancy Les Collections Coréennes du Musée Guimet, au Xixe Siècle, Roman D'un Voyageur*, Victor Collin de Plancy, L'histoire des collections Coreennes en France, France: Sèvres cite de la ceramique, 2014.

Chamberlain, Basil Hall. *Things Japanese : being notes on various subjects connected with Japan for the use of travellers and others*, London : J. Murray, 1905.

C.J.A. Jörg.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Hague: Springer, 1982.

Courant, Maurice. *Le pavillon cor en au Champ-de-Mars*, Exposition Universelle Internationale de 1900 a Paris, Paris:Imprimerie Nationale, 1902, vol. I.

Maurois, Andre. *Histoire de la France*, Paris: Albin Michel, 1957.

Michel Beurdeley. *Chinese Trade Porcelain*, Rutland: Charles E. Tuttle Co, 1962.

Jacquemart, Albert. *Les merveilles de la céramique ou L'art de façonner et décorer les vases en terre cuite, faïence, grès et porcelaine, depuis les temps antiques jusqu'ànos jours*, Tome I, Orient, Hachette, Paris:France, 1866.

John E. Wollmer. E. J. Keall, E. Nagai-Berthrong. *Silk Roads. China Ships*, Toronto: Royal Ontario Museum, 1984.

Julien, Stanislas. *Histoire et fabrication de la porcelaine chinoise*, (Mallet-Bachelier, Paris, 1856.

Reid, Anthony.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Belief*, Cornell: Cornell Univ. Pr, 1993.

Sartel, O. Du. *Le porcelaine de Chine*, Vve A. Morel & cie, 1881.

Sartel, O. Du. *Porcelaines de la Chine et du Japon*(Paris, 1882.

Plancy, Victor Collin. Rapport de Monsieur L.R mion, inf nieur c ramiste de la maison imp riale de Cor e sur l'installation S oul d'une fadrique de porcelaine, 1903.

*Liste D'Objets Exposes, Lors de L'Exposition Universelle de 1900 A Paris*, Paris:France, 1900.

Musee national Adrien Dubouche, *Exposition temporaire Coree, 1886. Roman d'un voyageur*, 2016.

#### 5. 프랑스 아카이브

플랑시공사 서신, Paris, 4 novembre 1887(4W57),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 서신 15 novembre 1887(4W48),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 서신, Séoul, le 23 novembre 1888(4W57),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의 유물목록노트 1889, 1, 7(P1000066),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 서신, Séoul, le 1e mai 1889(4W559),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 서신, Séoul le 10 octobre 1889(문서번호 없음),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가 세브르도자제작소 관장에게 보내는 공문, Tokio, 21 juillet 1891(4W389), Archives du Musée Sèvres.

모리스 쿠랑이 플랑시공사에게 보낸 서신, 17 mai 1896, Archives du Médiathèque.

플랑시공사의 관리자 서신, 5 septembre 1908(문서번호 없음),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의 유물기증목록대장,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 공문, ‘*Chine Palais d'étophotographie appartenir àM.Collin de Plancy*’(P1000117~P1000122), Archives du Musée Sèvres.

플랑시공사 서신, 5 mai 1895, Archives du Musée Guimet.

플랑시공사 공문, 9e carton, 3e dossier no 10, Archives du Médiathèque.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는 1886년(고종 23)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초대 駐朝公使로 재임하면서 한국 문화재에 심취하여 수집과 기증에 매진한 장본인이었다. 한국의 도자는 플랑시공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수집 의욕이 뒷받침되어 근대 초기 상당량이 자국 프랑스로 유입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문화재였다. 한국 도자에 대한 플랑시공사의 지대한 관심은 공예교육과 프랑스산 도자의 수입, 한국 도자사 연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도자외교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조선에서의 한국 도자수집은 초창기, 전문 골동상을 통한 합법적 구입이 시작된 이래 점차 조선 정부로부터 도요지의 발굴허가를 취득하면서 직접 조사에 착수하고 陶製所를 탐문하는 열의를 내비친 점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플랑시공사의 이러한 행보는 근대 프랑스 제국주의의 문화정책에 부흥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도자를 시대별, 기종별로 치밀하게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유럽 인문학계에서 이미 선행 연구된 동양도자사의 범주에 한국 도자의 소개는 물론 도자사적 위상과 위치에 대한 새로운 지평 및 시각을 도출하려는 의지와 직결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프랑스 세브르도자박물관과 기메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하게 되고, 비로소 한국 도자의 정체성을 알리게 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Victor Collin de Plancy and His Ceramic Diplomacy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Korea

Eom, Seung-hui \*

Victor Collin de Plancy was the first French minister dispatched to Joseon Korea since the Treaty of 1886. Fascinated by Korean cultural artifacts, he committed himself to their collection and donation during his term in Joseon. It was de Plancy's enthusiasm that made possible the influx of a substantial amount of Korean ceramics into France. His passion for Korean ceramics grew into areas such as ceramic education, the importation of French ceramics, and historical research of Korean ceramics, providing the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diplomatic relations via ceramics. His collection of Korean ceramics is particularly noteworthy because of the shift in his manner of collecting. At first, he purchased his items through the regular channel of antique dealers. But in the end, he acquired his own excavation license from the Joseon government, undertaking firsthand investigations at kiln sites.

In the final analysis, de Plancy's enterprise conformed to the imperialistic cultural policy of modern France. At the same time, his methodical and systematic collection based on chronology and typology attests to his personal dedication to establishing the history of Korean ceramics as a new area of research within nineteenth-century European scholarship of Asian ceramics. Not only did he introduce Korean ceramics as a new subject of study in the history of Asian ceramics, but he also endeavored to foregrou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His efforts came to fruition around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ith the opening of Korean

---

\* Ewha Womans Univ. Ceramic Research Institute

galleries at the Musée Sèvres and the Musée Guimet, which brought the uniqueness of Korean ceramics to public attention.